

전남 유통식품 10건 중 4건이 GMO

〈유전자변형〉

보건환경연구원 112건 검사 42.9% 미량 성분 검출

우승희 도의원 “학교급식 납품 전수검사 검토해야”

전남지역에서 유통된 식품 가운데 10건 중 4건 이상에서 미량이나마 유전자변형(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3년간 도와 시·군이 수거한 식품 112건에 대해 GMO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검사 대상의 42.9%인 48건에서 허용 기준 내인 0.026~0.960%의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됐다. 58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6건은 판정 불가였다. 검출된 106건 가운데 10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경남 함양 한 업체가 제조한 콩가루는 표시 기준을 위반해 함양군으로부터 제조 금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허용 기준 이하이더라도 GMO 검출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최소한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GMO 전수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대상은 식품 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이라며 “그러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식품은 구분유통 증명서나 정부

증명서를 갖추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때문에 대부분 식품에서는 관련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하점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근 시민단체는 GMO 표시를 원재료 기준으로 하고 현행 3%인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하자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지 연설하는 힐러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8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롤리(Raleigh)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11일 현안질문 열기로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회담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긴급현안질문에 야당 의원들만 12명이 참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 50여명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무위원을(국회에) 출석시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전모를 파악하고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율 19.4%

수질·대기·토양검사 초과율 3%

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전남도가 올해 실시한 각종 수질·대기·토양검사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급수시설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기준치 초과비율이 19.4%로, 환경부문 검사실적에서 기준치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8일 내놓은 올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오염·실내공기질 오염

도·악취·지하수·폐수·매립지 침출수 등에 대한 검사 1만4968건 중 기준치 초과 건수는 전체의 3.0%인 448건에 달했다.

검사실적 1만4968건은 올해 계획실적 1만8200건의 82.2%에 해당된다.

기준치 초과율이 가장 높은 검사는 마을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로, 검사실적 36건 중 19.4%인 7건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또 검사실적은 계획실적 250건의 14.4%로, 해당 검사실적 중 검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하수및 분뇨방류수 검사(초과율 10.3%) ▲지하수 검사(“ 6.4%) ▲폐수검사(“ 5.9%) ▲악취 검사(“ 3.7%) ▲소음·진동검사(“ 2.2%) 등이다.

다만 물환경측정망운영과 하천·호소수 수질검사,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토양 오염실태, 골판지농약잔류량조사 등 검사에선 초과율이 ‘0’였다.

한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유통식품·농산물 및 도내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7350건의 식품별규격·잔류농약·자카품질검사서 대장균·납·잔류농약검출 등 부적합 건수는 전체의 0.2%인 18건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지방정가

이미옥 시의원, 광주 청년 취업자 하락률 1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비례) 의원은 8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장현 시장의 핵심정책인 청년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청년인재육성과, 일자리경제국 등에서 44개 사업에 모두 28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 취임 초기인 2014년 하반기 11만7000명이던 취업자 수는 2015년 상·하반기 각 11만



4000명과 10만9000명으로 줄어든 뒤 올해는 10만5000명으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자는 이 기간 1.1% 늘었으나 광주는 오히려 8.4%가 하락, 전국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청년정책에도 취업자 수 감소는 청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열기자 cki@

정영덕 도의원, 순천의료원 약품 불투명 수익계약

순천의료원이 약품 구매 등 과정에서 불투명한 수익계약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은 8일 도립 순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 구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수익계약 대상은 2천만원 이하인데도 지난 5월과 9월 3300만원, 264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수익계약으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순천의료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수익계약으로 70여건 약품 구매를



하면서 40건을 특정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과 수술 점막보호제, 금단현상 치료제, 위산분비 억제제 등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인데도 특정 회사에 몰아준 것은 특혜성 계약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하수도 장의자랑 운영일지, 사용요금 징수과정 등에 서연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강진의료원장 연봉 1억4229만원 최고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14곳

전남 출자·출연기관장 가운데 최고액 연봉자는 강진의료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장은 연봉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1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중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을 제외한 14개 기관장 가운데 이중 강진의료원장의 연봉이 1억4229만원, 정효성 순천의료원장은 1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립의료원장들 다음으로는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이 1억1738만원, 이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억394만원, 김병일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억150

만원 등 모두 5명이 역대 연봉을 기록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은 각각 9100만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이 8871만원,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이 8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복지재단(7800만원), 전남개발공사(7500만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7248만원), 전남여성플라자(6216만원), 전남청소년미래재단(6155만원)은 상대적으로 기관장 연봉이 낮았다.

이 가운데 8개 기관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2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식품부, ‘수말아’ 벼 잠정등의 매입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의 잦은 비와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해 수말아(總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 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를 당한 벼를 잠정등의 규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수말아 피해가 발생한 재배면적은 1만4823ha로, 전남(1만1216ha)과 전북(3506ha)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